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맞춤 정책 필요하다



<하> 특수학교 지원 10년째 '제자리'

#. 전남 지역 A 특수학교에 다니는 B(12·뇌병변 장애)군은 오전 7시 전부터 아버지와 마을 정류장에서 통학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가 도착하면 A군 아버지는 통학버스 기사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B군을 그대로 안아 버스에 올린다.

5년째 매일 같은 일을 해왔다. 통학버스가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추지 못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들을 들어올려 버스에 태워야했다. B군도 혼자

개별·소규모 분산 통학... 교통비 지원·분교 설립 논의를 특수학교 지원 예산 늘리고 통학 전담 지원체계 갖춰야

서 4시간 넘게 불편한 자세로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B군 부모는 "몸도 불편한데 조금 편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매년 요청하고 건의하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다녀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

학부모들은 매년 특수학교 통학 시간, 차량 노후화 문제를 호소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산 핑계만 대는 교육청 답변은 실망을 넘어 포기했다는 말로 들린다.

전문가들은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특수학교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제기되는 대안으로는 '에듀택시'가 꼽힌다.

에듀택시는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가장 멀어 이른 시간에 통학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개별 통학 또는 소규모로 나눠 학교로 바로 통학할 수 있게 택시와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영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학교가 많이 없어서 선택권이 없지만 근거리 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은 출석부터 시작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 학급을 늘리고 교사, 실무사 확충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강민희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구만큼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 각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 전담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통학 실무사, 실시간 통학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통 버스에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타고 통학 실무사 1명이 배치되는데, 혼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모두 보살피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 실무사 확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오미화(진보·영광 2) 전남도 의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핑계"라고 지적했다.

전남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전남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남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023년 2.6%, 2024년 2.9%로 전국 평균 3.7%와 3.9% 밑돌았다.

전남 한 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 직영 차량 지원과 원거리 학생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 점이 어렵다"면서 "특수학교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타 사·도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전남은 제대로된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특수학교 이동차량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 등으로 승하차가 어려운 임대차량을 이용하는 문제, 인력난으로 인해 고령 운전기사를 투입하는 것은 또다른 특수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도 같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싱크홀 사고 막아라

23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굴착작업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땅까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명주 기자 mjna@

나주에 '경찰 수색센터' 개소

경찰 수색센터가 전남에서도 마련됐다. 전남경찰청은 23일 실종자 수색 및 재난 대응을 위해 나주시 봉황면에 전남수색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수색센터는 수색견 생활 공간인 견사와 수색견을 다루는 핸들러 사무실 등으로 꾸며졌고 견사에는 목욕 시설과 건조 시설, 화장실 등이 별도로 마련됐다.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수색견은 기존 2마리에서 3마리로 늘었다.

전남청은 기존 2마리의 수색견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급한 자원이어서 전국 재난 상황에 동원되지만 새로 영입한 수색견 1마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원해 전남 지역에서만 활동한다.



23일 나주시 봉황면에 개소한 '경찰 수색센터'. <전남경찰청 제공>

수색견은 지난해 378건의 전국 과학수사에 출동했고 전남 지역이 49건(12.9%)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 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골든팀을 사수,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여수공항에 연내 조류충돌 예방레이더 설치

정부, 추경 431억 투입 환경 개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조류충돌예방레이더·방위각시설 등이 연내 개선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증액 가능성도 높아 무안공항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 유가족들을 상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무안국제공항 등의 시

설 개선 현황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안에 547억원을 반영, 공항·방위각·조류 및 화재대응 드론 개발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우선, 224억원을 들여 무안·김포·여수공항과 제주·양양·울산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무안·여수·광주공항 등 13개 공항 시설물을 개선한다.

정부는 또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 점검(1월 2일~8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9억원을 투입, 무안·여수·광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및

둔덕 개선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의 경우 올해 추진,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실증을 진행하는 한편, 2026년까지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 개발에 나서는 등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조류충돌 및 화재 대응을 위한 드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모사업과 피해자 지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14억)도 반영, 추경에 편성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낮 다소 덥다

긴 팔 셔츠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낮에는 20도를 웃도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최저 7~11도, 최고 18~22도)보다 2~4도 가량 높지만,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말했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9~23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에 이른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보이겠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